



## 어차피 그놈이 그놈? 울여름 가장 특별한 OST가 찾아온다!

‘죽는 날까지 믿고 사랑하기로 한 평생의 반려자는 저 자신입니다.’(극중 현주의 대사)

세상속에 결혼이라는 건 뭘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과연 무엇일까.

폭발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 KBS 2TV 월화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의 첫 번째 OST가 13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되었다.

가수 에릭남(Eric Nam)이 부른 ‘그놈이 그놈이다’의 첫 번째 OST ‘Count On Me’은 담백하고 편안한 보이스에 리드미컬한 보컬과 밝고 선명한 기타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으로써 완성도 높은 OST라는 평가를 받으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인물들의 컨셉과 드라마의 컬러에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지는 이 곡은 드라마의 극중 몰입도를 높이고 시청자들에게 드라마의 감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곡을 만든 허성진 작곡가는 스무살 초반부터 대중 가요 작곡을 시작해 ‘태양의 후예’ OST ‘말해 뭐해’를 포함해 유성은의 ‘비 오케이’(Be Okay) 에일리 ‘홈’(Home) ‘노노노’(NO NO NO) 틴탑 ‘메리크리스마스’ ‘5계절’ 업텐션 ‘습관’ ‘병원선’ OST ‘터치 오브 러브’(Touch of love) ‘너도 인간이니’ OST ‘눈을 맞추면’ ‘바람이 분다’ OST ‘투나잇’(Tonight)을 작업했다. 또 2019년 가장 사랑 받은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OST ‘영화 속 나오는 주인공처럼’ ‘운명이 내게 말해요’를 썼다.

허성진 작곡가의 이번 ‘그놈이 그놈이다’의 OST ‘Count On Me’ 또한 이전 곡들의 명성을 뛰어넘는 명불허전 ‘명품 OST’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작곡가 허성진이 음악감독 개미와 협업하여 만들어진 곡의 가사 또한 오랜시간 지키고 싶은 단 한 사람을 위한 솔직한 마음을 담은 가사로 몰입도를 높이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창에 참여한 에릭남은 두말할 것 없는 한국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팝 스타일의 가창에 최적화된 뮤지션이다. 최근 첫 영어 앨범 ‘Before We Begin’을 발매해 글로벌 시장 데뷔에 시동을 건 에릭남은 스포티파이(Spotify)의 아시안 아메리칸 대표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예술가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에릭남의 노래를 기다리는 팬들에게도 이번 OST 발매는 매우 반가운 소식으로 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KBS ‘본 어게인’의 후속으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는 ‘비혼주의자’가 된 한 여자가 상반된 매력의 두 남자로부터 직진 대시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비혼 사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시대를 반영한 ‘비혼’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로코퀸’ 황정음이 주연을 맡아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에릭남의 ‘Count On Me’을 비롯한 향후 발매될 OST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들과는 다른 아픔을 가졌기에 세상에 던지는 상처를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 tvN 토일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연출 박신우, 극본 조용/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스토리티브이, 골드메달리스트)의 두 번째 OST, 샘김의 '숨(Breath)'이 6월 2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되었다.

힘든 상처를 가진 두려운 마음, 그 아픔속에 느끼는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표현한 곡으로 가수 샘김만의 독특하고 섬세한 보이스가 더욱 돋보이는 곡이다. 섬세한 감성을 솔직한 가사로 표현한 곡으로 극중 인물들에 대한 공감과 진한 감동을 배가시켜줄 호소력 짙은 감성 OST라는 평가를 받으며 앞으로 진행될 '사이코지만 괜찮아' 스토리의 잠재적 감동을 물씬 전달해 줄 명품 OST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샘김의 '숨(Breath)'은 드라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사랑의 불시착' 등 수많은 히트 드라마의 OST를 작업한 남혜승 음악감독과 박진호 작곡가의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곡으로 발매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큰 화제가 되었다. 음원 공개 직후 음원차트 상위권에 진입해 이슈가 되면서 또 한번 일류 대중음악 창작가로서의 역량을 여지없이 발휘한 명곡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가창에 참여한 싱어송라이터 샘김은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성장을 거듭해 꾸준한 찬사를 받고 있는 뮤지션으로 꾸준한 음악활동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드라마 '도깨비',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등 꾸준히 히트 OST를 탄생시킨 자타공인 OST 명품보컬로 이번 '사이코지만 괜찮아' OST '숨(Breath)'의 발매소식은 샘김의 노래를 기다리는 팬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졌다. 폭발적 화제가 되고있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의 세계', '동백꽃 필무렵', '구르미 그린 달빛' 등 유명 드라마 OST 제작과 함께 OST 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통해 또 하나의 한류의 메인스트림을 주도하고 있는 영상음악 전문 회사 '모스트콘텐츠'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 곡은 향후 글로벌 K-OST 산업을 이끌어갈 '모스트콘텐츠'의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많은 작품들 중 하나로 많은 기대와 호평속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 편의 영화같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남겨진 네편의 드라마.  
그때의 울림과 감동을 생생한 음악으로 다시 만납니다.

## 다시 찾아온 감동, 2020 모스트 콘서트

멀지만 가까웠던, 나의 하루를 함께했던 드라마.  
하루 일상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주고 위로의 목소리가 되었주었던 드라마 속 세상과 사람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긴장감으로, 때로는 상처를 잊을만큼 웃게 해주었던,  
그리고 매일을 설레게 만들었던 긴 여정의 시간들.

우리는 매주 같은 시간 드라마속 주인공들과 같이 대화하고, 차를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속에 내가 있었고,  
나의 일상속에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감동으로 남아있는 드라마 속 목소리, 드라마에 함께 녹아든 음악들.  
장면을 떠올리면 그 때의 음악들이 되살아납니다.  
만남과 이별의 순간, 거리의 모습들.  
모든 순간들을 함께 했던 그 때 그 음악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하는 무대가  
'2020 모스트 콘서트'로 찾아옵니다.

이념과 물리적인 벽으로도 사람의 진심을 막을 수는 없음을.  
가슴 먹먹한 따뜻한 감동이 이 힘든 세상에 분명히 살아있음을.  
아픔과 오해속에서, 소중한 진심을 지켜가는 것이 가슴 벅찬 행복임을.  
적어도 곳곳이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 한번쯤 더 생각했습니다.  
세상속에 한걸음씩 더 내딛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니다.

그 감동의 순간들을 다시 함께할 '2020 모스트 콘서트'.  
가족, 친구들과 함께 그 감동을 나눌 수 있는 '2020 모스트 콘서트'.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무대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메인스트림 역할을 하는 K드라마의 인기 비결에 빠질수 없는것이 바로 K드라마 OST일 것이다. 드라마 OST는 2차, 3차적인 홍보효과라는 큰 영향력을 가지며 드라마 그 이상의 이슈가 되며 한류의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해왔다.

드라마 OST에 대한 새로운 프로모션이 시도되고 더욱 확장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대중들은 이미 알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드라마OST가 음악산업, 문화산업의 주축으로서 새로운 공연문화, 콘서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점점 더 조성되고 있으며 시장의 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다.

K드라마 OST 산업 전반을 리드해가는 모스트 콘텐츠가 기획하고 참여하는 여러 공연과 문화 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와같은 흐름속에 이번 KOREA BRAND&ENTERTAINMENT EXPO 2020 한류박람회는 K드라마 OST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K드라마 팬뿐만아니라 한류에 대한 관심을 가진 대중들에게 앞으로의 K드라마 OST의 성장가능성을 여지없이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마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수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전문 오케스트라만으로 구성된 클래식한 공연, 영상미에 큰 비중을 두며 영화같은 감동을 다시 재현하는 공연까지.

드라마와 음악을 입체적으로 연계한 참신한 포맷의 기획과 스토리 중심의 드라마 하이라이트 영상과 오케스트라, 밴드, 그리고 출연가수가 실제 드라마의 감동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정교하고 입체적인 연출과 음악 시스템을 도입, 새로운 콘서트 포맷을 엮을수 있는 완성도 높은 콘서트로 관객을 맞이한다.

이번 KOREA BRAND&ENTERTAINMENT EXPO 2020 한류박람회에서 '별에서 온 그대'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구르미 그린 달빛' '더킹-영원의 군주'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전례 없던 세계적 대히트를 기록한 '도깨비'까지 온 국민, 전 세계 한류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대작 드라마의 영상 및 OST 공연으로 채워진다.

KOREA BRAND&ENTERTAINMENT EXPO 2020 한류박람회는 K드라마 OST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그 중심적 역할을 하는 모스트 콘텐츠의 비중과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향후 이어질 여러 프로모션과 공연에 대한 대중들이 관심이 더욱 커질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